



광주·전남 전반기 '우울한 성적표'

광주 12위 수비 불안 연패 늘
전남 13위 주전 줄줄이 부상

“2승 3무 6패, 광주·전남의 우울한 성적표” 2008 삼성하우젠 K-리그가 25일 11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무리 지으며 전반기가 마감됐다. 11라운드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지 못한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는 정규리그 12, 13위로 부산 아이파크에 이어 나란히 최하위에 머물며 아쉽게 전반기가 끝났다. 전남 드래곤즈는 25일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정인환의 자책골에 발목을 잡혀 2-3으로 역전패당했다. 전남은 전반 대구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전반 42분 김치우의 패스를 받은 시몬이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열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40분 시몬의 코너킥을 받은 송정현이 문전 앞으로 달려들면서 골을 성공 시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4분 만에 대구 이근호의 발리슛이 터지면서 전남은 끝내 2-3으로 무릎을 꿇었다.

전남은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에 골대휘, 고기우, 김치우 등 주전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드러누우면서 ‘부상병동’이 됐다. 게다가 K-리그와 컵 대회의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느라 개막 후 4경기에서 1무3패로 최하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경남을 맞아 4전5기로 간신히 첫 승을 신고했던 전남의 전반기 성적표는 2승3무6패로 초라하다.

광주상무는 앞선 24일 서귀포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호물로의 헤트트릭에 무너지면서 1-3으로 제주의 시즌 홈 첫 승 제물이 됐다. 경기 초반부터 상무의 열세였다. 매서운 공격을 퍼붓던 제주는 전반 22분 용병 호물로가 골키퍼 김용태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 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제주의

공세에 수비라인이 무너진 상무는 호물로에게 전반 36분과 후반 22분 두 골을 더 내주며 ‘꿀지 돌풍’ 재점화에 실패했다.



배킵의 공중전 LA 갤럭시의 데이비드 베컴(사진 왼쪽)이 2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 카르손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축구 캔자스시티 위자즈와의 경기에서 빅토린과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3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했던 상무는 3월 9일 시즌 첫 경기에서 성남과 1-1로 비기면서 패조의 출발을 했다. 경남과의 2라운드에서는 2-0으로 승리하는 등 초반 ‘꿀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지난 달 27일 전남과의 대결에서도 3-1로 승점 3

점을 챙기며 올 시즌 다크호스로 주목받았던 상무는 견고하던 수비가 흐트러지면서 4연패의 부진 속에 2승3무6패로 전반기가 마감됐다.

전반기 아쉬운 행보를 한 상무와 전남은 한 달여 간 전력 가다듬기에 들어간 뒤, 다음 달 28일 인천과 수원을 상대로 K-리그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 '챔스메달' 받을수있나

결승전 못뛰어 현장 수여 대상서 제외

총 30개 전달...사후 수여 가능성 높아

“꿈의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쳤음에도 결승에서 뛰지 못한 탓일까”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올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가의 일원으로 ‘더블’(정규리그, 챔피언스리그 2관왕) 달성에 기여했음에도 24일 귀국할 때 그가 가지고 온 우승 메달은 한 개 뿐이었다. 정규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결장하면서 메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규리그에서는 38경기 중 1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는 메달 수여 자격이 된다. 박지성은 지난 12일 워건 애슬레틱과 3라운드 선발 출격해 소속팀의 통산 17번째 우승에 일조를 한 뒤 당당히 메달의 주인이 됐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는 메달 수여 규정은 정규리그와 조금 다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에 메달 30개가 배

당되는 게 유럽축구연맹(UEFA)의 관례. 지난 22일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뛰었던 교체 선수 7명을 포함한 총 18명은 우승 축하 세리머니 직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발 11명에 이름을 올렸던 폴 스콜스와 오언 하그리브스는 물론 교체 멤버였던 라이언 기스, 존 오셔, 루이스 나니, 안데르손, 대런 플레처, 미카엘 실베스트르 등이 영예를 안았다.

아직 우승 메달을 받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박지성이 대표팀 참가를 위해 영국에서 곧바로 귀국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박지성 에이전트도 “박지성이 나중이라도 메달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 참가를 위해 일찍 귀국길에 오른 박지성이 ‘잃어버린 우승 메달’의 주인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챔스리그 결승서 붙었던 두 감독의 진로 '명암'

구단 “원할 때까지 하라”

맨유 퍼거슨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2관왕으로 이끈 ‘명장’ 알렉스 퍼거슨(67) 감독이 3년 안에 지휘봉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25일(한국시간) 퍼거슨 감독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3년 후에 나는 맨유 지휘봉을 잡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01-2002 시즌 은퇴를 선언했던 퍼거슨 감독은 팀의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보고 은퇴를 반복한 적이 있다. 프리미어리그 3위에 그쳤던 맨유는 다음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부활했다. 이때 일찌감치 은퇴 의사를 밝힌 게 팀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던 퍼거슨 감독은 그동안 은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력히 부인했으며, 최근에는 데이비드 길 맨유 사장으로부터 “원할 때까지 감독을 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우승 눈앞서 놓쳐’ 경질



첼시 그랜트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아깝게 놓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첼시가 아브람 그랜트(53·이스라엘) 감독을 경질하는 인사 채신책을 단행했다. 첼시는 25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랜트 감독이 첼시를 떠났다”며 계약 해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성적 부진 및 구단주와 불화 등으로 사령탑에서 물러났던 조제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첼시 지휘봉을 잡은 이후 6개월 만의 낙마다. 그랜트 감독은 이번 시즌 칼링컵 준우승에 이어 정규리그에서도 막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턱밑까지 추격하고도 맨유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넘겨줬다. 또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맨유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트레블 준우승’에 그치며 더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 2관왕)을 달성한 맨유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오늘 대한체육회장 선거

김정행·이승국·이연택 후보 치열한 접전

유례없이 대접전을 펼치고 있는 제36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후보자로 나선 김정행 응인대 총장과 이승국 한국체대 총장, 이연택 전 체육회장 캠프에서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체육계에서는 치열한 접전으로 인해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기 보다 결선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과거 회장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개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 현상도 사라지면서 대의원들의 최종 결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정행 총장 측에서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1차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표를 흡수하는데 마지막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승국 총장 측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이 후보 관계자는 “우리는 1차에

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위와 3위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연택 전 체육회장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이 후보 측은 “정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당선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한 이번 선거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체육인들의 손에 회장 선출을 맡긴 것이 여러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천신일 대한레슬링협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승국 후보가 1차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지, 김정행 후보나 이연택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체육계 수장에 오를 수 있을 지 대의원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격투기’ 김동현 TKO 승 ‘화끈한 신고’

美 UFC 웰터급 데뷔전



로써 한국 파이터 가운데 처음으로 옥타곤 위에서 승리를 거뒀다. 또 2004년 스파이트 아마추어 리그 대회를 통해 격투기에 데뷔해 프로 무대에서 10승(6KO)1무를 기록,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탄은 격투기 통산 5승2패가 됐다.

한국 격투기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 UFC에 진출한 김동현(27·사진)이 데뷔전에서 화끈한 TKO승을 거뒀다.

김동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에서 열린 UFC 웰터급 원매치에서 영국의 신예 제이슨 탄(25)을 3라운드 시작 25초 만에 TKO로 물리쳤다.

지난 1월 UFC 진출을 선언한 김동현은 이



26일(월) ▲2008 LPGA 코니 클래식 FR(04 : 00·SBS골프) ▲2008 청룡기 고교야구 결승전(18 : 30·MBC ESPN) 27일(화) ▲2008 메이저리그(시카고 W : 클리블랜드)(07 : 55·XSPORTS)

널 FR(04 : 00·SBS스포츠·SBS골프) ▲전국 대학생 검도대회(14 : 00·MBC ESPN) ▲2008 청룡기 고교야구 결승전(18 : 30·MBC ESPN) 27일(화) ▲2008 메이저리그(시카고 W : 클리블랜드)(07 : 55·XSPORTS)

Advertisement for Kyuten (큐텐) health supplemen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miling elderly woman and text: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and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The ad includes product information for Kyuten (큐텐) and contact details for Kujie Pharmacy (국제약품).